

# 《論語》 ‘是’ 의미자질 분석

한 경 숙\*

---

## ◁ 목 차 ▷

- I. 서론
  - II. ‘是’의 형태적 특징
  - III. ‘是’의 의미 확장 과정
  - IV. ‘是’의 의미구조
  - V. 결론
- 

## I. 서론

언어단위의 필연적 함축물인 의미의 실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양 좋게 우리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명쾌한 존재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희미해지는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가사의를 해석해주려고 의미론학자들이 숙명적으로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는 말소리가 일정한 수의 어음으로 분석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해서 수많은 단어와 문법요소들로 구성된다. 언어의 이와 같은 특징은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말소리가 분석되고 또 소리의 연결체가 일정한 의미를 가진 단위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언어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언어현상을 완전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언어형식의 기술로부터 시작해서 내적 의미를 검토해야 하며, 내적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형식을 연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자는 형태론, 후자는 통사론이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필연적 함축물인 의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으로 언어연구

---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조교수

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의미가 언어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형태론적 시각에서 각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음에 그 어휘가 활용되는 문장 속에서 의미구조와 통사적 특징에 대해 분석해서 그 어휘 자신만의 의미자질을 찾아갈 수 있다.

《논어》<sup>1)</sup>는 선진시기의 언어적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작으로 매우 높은 학술적 가치와 언어적 가치를 갖고 있다.

楊伯俊(2010)<sup>2)</sup>에 의하면, 《논어》가 완성된 시기는 戰國시대 初期이다. 그러나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인하여 西漢시기에 이르러 구두로 전하는 판본 《魯論語》, 《齊論語》와 공자의 옛집 이중벽에서 발견된 판본만이 남아있었다. 서한 말년 당시의 국사 張禹精이 《魯論語》와 《齊論語》 등 여러 판본을 참고하여 《논어》를 정리하였는데 이를 《張侯論》이라 하였다. 이 책이 당시 권위 있는 《논어》라 할 수 있다. 현재 《魯論語》와 《齊論語》는 전해지지 않고 있기에 현대의 《논어》는 서한 말년 당시의 국사 張禹精의 《논어》인 《張侯論》일 것으로 추정된다.

《논어》에 대한 연구는 백년이 되었다. 그 동안 2011년에 이르러 《논어》에 관한 논문은 250여 편이 된다. 이런 논문 중 단어나 통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동시에 학계의 《논어》에 대한 연구 방법도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논어》의 언어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테마별 연구와 《논어》와 다른 문헌과의 비교연구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테마별 연구는 주로 ‘吾’, ‘我’, ‘之’, ‘부정사’ 등 《논어》에 대한 詞彙 통사론적인 연구를

1) 본고의 분석에서 사용한 《論語》 판본은 “許嘉璐, 十三經,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1992.”, “楊伯俊, 論語譯註, 北京: 中華書局, 2010(1958).”, “류종목, 論語의 문법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장호득, 《論語》와 함께 배우는 고대중국어 문법, 용인: 교학출판사, 2012.” 등 네 권을 참고하였다.

2) 楊伯俊, 《論語譯註》: 「《論語》成書于戰國初期。因秦始皇-焚書坑儒(雖說是焚書坑儒, 但是活埋的其實是一些方士及一些書本), 到西漢時期僅有口頭傳授及從孔子住宅夾壁中所得的本子, 計有: 魯人口頭傳授的《魯論語》20篇, 齊人口頭傳授的《齊論語》22篇, 從孔子住宅夾壁中發現的《古論語》21篇。西漢末年, 帝師張禹精治《論語》, 并根据《魯論語》, 參照《齊論語》, 另成一論, 稱爲《張侯論》。此本成爲當時的權威讀本, 据《漢書·張禹傳》記載: “諸儒爲之語曰: ‘欲爲《論》, 念張文。’由是學者多從張氏, 餘家寢微。”《齊論語》《古論語》不久亡佚。現存《論語》20篇, 492章, 其中記魯孔子與弟子及時人談論之語約444章, 記孔門弟子相互談論之語48章。… … 我們今天所用的論語本子基本上就是《張侯論》。」, (北京: 中華書局, 2010), 31쪽.

하였다. 테마별 연구의 시작은 胡適(1917)의 《吾我篇》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논어》에 나타난 ‘吾’와 ‘我’의 문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吾’와 ‘我’ 사용상의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논어》와 다른 문헌과의 비교연구는 주로 《논어》와 다른 문헌 사이의 비교, 혹은 《논어》와 현대중국어 방언 사이의 단어, 문장구조, 통사적 기능 등 면에서 연구가 활발했다. 특히 萬獻初(1990)는 방언과 《논어》의 관계를 통시적인 각도로 접근하여 연구를 하였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90년대 이후 위의 두 가지 방향 외에 문법화나 결합관계 그리고 配價의 각도에서 접근하여 《논어》를 연구한 논문도 있었다.

《논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詞彙연구, 분류와 분포에 치중되었고, 의미구조에 대한 연구와 의미자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한국에서 《논어》에 대한 어학적 선행연구는 안재철(1981), 김혜경(1997), 신미자(1989), 김종호(2009, 2010), 한경숙(2012) 등의 ‘以’, ‘於’ 전치사구와 ‘之’에 대한 분석과 ‘動賓구조’와 ‘使役文’ 그리고 목적어 전치, 존재범주 등에 대한 분석 등 몇몇 논문에 그쳤다. 이들의 연구는 분류와 분포에 치중했다. 김종호(2009)는 초점, 화제화 등 인지적 이론을 이용하여 《論語》의 전치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경숙(2012)은 《논어》의 존재 범주 언어 도출 제 양상에 대한 연구, 즉 ‘有’, ‘在’, ‘於’, ‘于’의 의미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이런 선행연구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성분분석법과 격문법 분석법으로 《논어》에 출현한 ‘是’의 형태적 특징, 의미기능, 의미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자질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특히 논쟁이 많은 춘추전국시대에 繫詞 ‘是’의 출현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是’는 《논어》에 모두 60번 출현하였다. 이중 지시대명사 34번, 한정 지시대명사<sup>3)</sup> 7번, 繫詞<sup>4)</sup> 4번, 조사 4번, 부사 4번, 그리고 형용사

3) 대부분의 지시대명사는 그 통사적 특징이 매우 다양하여 문장 중에서 주어 목적어 등 다양한 위치에 출현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 명명한 ‘한정 지시대명사’는 명사인 중심어의 앞에 위치하여 그 명사를 한정해주고 수식해주는 통사적 기능만을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에 본고는 ‘한정 지시대명사’로 명명하여 일반 지시대명사와 같은 부류에 넣지 않고 따로 다른 한 부류로 정리하였다. 何樂士(2000:211)의 《古漢語虛詞通釋》에서는 이런 한정어로만 사용되는 통사적 특징을 가진 ‘是’를 대명사에 귀속시켰지만, 본고는 이들을 ‘한정 지시대명사’로 따로 분류하겠다.

4) 본고에서는 關繫를 나타내는 동사를 繫詞라 칭한다. 繫詞는 判斷詞라고도 한다.

한 번, ‘故’, ‘以’, ‘用’과 함께 형성된 ‘是’자 구조도 6번 출현하였다.

《논어》에 출현한 ‘是’의 통사적 특징은 매우 복잡하다. 즉 ‘是’가 지시대명사로 사용된 경우 그 통사적 기능은 매우 다양하여 주어, 술어, 부사어 등 다양한 위치에 나타난다. 그리하여 독특한 통사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是’의 형태적 특징, 의미기능, 의미구조 등 부분으로부터 착수하여 ‘是’의 의미자질을 분석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여러 시기의 대표적인 논저에 출현한 ‘是’의 의미자질을 더 분석한 후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찾아보게 되면 ‘是’의 발전 흔적을 보다 분명하고 명쾌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문자는 대부분 상형문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是’가 이런 최초의 상형문자에서 언제 어떻게 繫詞, 형용사, 동사 등으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원인도 형태적 특징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언어의 발전에 따라 파생된 의미의 다양화, 그리고 여러 통사적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의미구조를 갖게 되는 원인 등의 분석은 ‘해가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상형문자 ‘是’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확하다(正確)’라는 형용사, 그리고 동사 ‘정확하다고 생각한다(認爲正確)’, ‘교정하다. 바로잡다. 시정하다. (糾正)’라는 의미가 파생되었고, 그리고 다시 ‘여기, 이것, 이것들(這, 這, 這些)’을 거쳐 ‘~이다.(繫詞(判斷詞))’로 발전하였고, 이런 ‘繫詞’가 어떻게 ‘그 어떤, 모든(任何)’의 의미를 가진 ‘한정 지시대명사’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논어》가 완성된 춘추전국시기에 ‘是’의 繫詞 용법의 출현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해볼 것이다.

## II. ‘是’의 형태적 특징

허신의 《설문해자》<sup>5)</sup>에는 ‘是’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是’는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日’자와 ‘正’자로 구성된 會意자이다. ‘是’는 籀文의 ‘是’이다. 모든 ‘日’변을 갖고 있는 부류는 다 ‘日’을 따른다.” 즉 ‘是’가 ‘日’자와 ‘正’자로

5) 許慎 著, 李翰文譯注, 《說文解字》: “是, 直也。從日、正。是, 籀文是, 從古文正。凡是之屬皆從是。” (北京: 九州出版社, 2006.), 139쪽.

구성된 會意자라는 뜻은 '日'을 '標準'으로 삼은 것이 '是'인데, 천하의 만물이 모두 '日'처럼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是'의 기원은 '해가 하늘에 바르게 떠 있다.'에서 왔다. 갑골문에는 아직 '是'가 나타나지 않았고 金文인 '毛公旅方鼎'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是'는 초나라의 죽간글씨체인 '楚系簡帛文字' 그리고 '大篆', '小篆'을 거쳐 현대중국어의 '是'로 변화되어 왔다.

'是'는 그 음운변화도 여러 번 있었다. 상고중국어 시기에는 支韻, 禪紐, 上聲이 었지만, 중고중국어 시기에는 止韻, 開口, 三等, 上聲, 紙韻, 禪紐, 承紙切이었고, 근대중국어에서는 支思韻, 審紐, 去聲이었으며, 현대중국어에서는 一七韻, 審紐, 去聲이다. 이런 '是'가 아래와 같은 자형의 변화<sup>6)</sup>를 거쳐 현대중국어의 '是'로 발전되어 왔다.

|  |  |  |   |
|--|--|--|---|
| <br>毛公旅方鼎 | <br>是要餒   | <br>陳公子叔遠父廡 | <br>鄒王種鼎 |
| <br>王子午鼎  | <br>袁成叔鼎  | <br>樂書缶     | <br>伯亞臣鐘 |
| <br>臧孫鐘   | <br>帛甲4.8 | <br>說文籀文    | <br>說文   |

그림 (1) '是'의 자형 발전 과정

6) 본 문에서 인용한 '是'의 자형변화의 출처는 대만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와 資訊科學研究所가 “漢語大字典(遠東圖書公司), 2冊.1497頁.5字; 漢語大字典(建宏出版社), 629頁.19字; 康熙字典(中華書局), 0493頁.26字; 說文解字詁林正補合編(鼎文書局), 3冊.6頁; 說文新證(藝文印書館), 上冊,110頁; 說文新證(福建人民出版社), 119頁; 金文編(中華書局), 90頁.5行; 金文詁林(香港中文大學), 2卷.431頁; 金文詁林補(中央研究院), 1冊.2卷.533頁; 殷周金文集成引得(中華書局), 0985字號.1250頁; 楚系簡帛文字編(增訂本)(湖北教育出版社), 145頁.9行” 등 책을 정리하여 만든 말뭉치 '小學堂'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위의 '是'의 자형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毛公旅方鼎'부터 '城孫鐘'까지는 '金文' 중의 '是'를 역사 순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한 것이고, '帛甲4.8'는 죽간에 새겨진 '楚系簡帛文字'이며, '說文籀文'과 '說文'은 小篆체이다. 그리고 小篆體가 '楷書'로 발전하였다. '金文'은 殷金文, 西周金文, 東周金文, 秦漢金文 등 네 단계를 거쳐 진 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鐘鼎에 金文을 새기지 않고 비석에 小篆體로 글을 새기도록 하였기에 이때부터 金文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漢나라 때에 이르러 그 중격을 감추었다. '是'가 처음 출현한 金文인 '毛公旅方鼎'은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771년 사이 西周시대의 金文이다. 이때부터 '是'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죽간에 새겨진 '楚系簡帛文字'인 '帛甲4.8' 출현할 때까지 '是'는 그 자형이 여러 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王子午鼎' 중의 '是'의 자형이 다른 여러 자형들과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른 듯 보이지만, 글자를 확대해 본다면 '陳公子叔遼父甗'와 많이 유사하다. 또한 갑골문에는 '是'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楚系簡帛文字'인 '帛甲4.8'는 기원전 475년부터 기원전 221년 사이의 戰國의 문자이다. 이런 簡帛文은 竹簡에 새기거나 布帛에 쓰인 篆書이다. 小篆體인 '說文' 자형을 보면 楷書와 이미 매우 근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어》가 춘추전국시대의 논저임을 가만하면 '楚系簡帛文字'인 '帛甲4.8'가 《논어》 시기의 '是'의 자형인 것이 가장 유력할 것이다.

'帛甲4.8'인 '是'자를 보면 윗부분은 '해(日)'이고 아래 부분은 '바르다, 바로잡다, 갖추어지다(正)'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시기 '是'는 최소한 '바르다, 바로잡다, 갖추어지다(正)'라는 의미는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是'의 의미 확장 과정을 묘사해볼 것이다.

### Ⅲ. '是'의 의미 확장 과정

본장에서는 春秋戰國時代라는 공시적 연대성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의미구조를 연구하기 위하여 《辭源》과 《全功能漢語常用字字典》을 기준으로 삼아 '是'에는 어떤 개념이 부가되어 춘추전국시대에 만들어진 《論語》에 나오는 의미항목들이 되었는지를 풀어가겠고 《現代漢語詞典》 '是'의 의미항목과 《辭源》, 《全功能漢語常用字

典》‘是’의 의미항목 비교를 통하여 현대중국어의 ‘是’는 《辭源》과 《全功能漢語常用字字典》에 없는 ‘是’의 어떤 의미항목이 추가되었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現代漢語詞典》에서는 ‘是’의 의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표 (1)

| 과정 | 한국어 의미  | 중국어 의미  |   |
|----|---|---|---|
| ①  | 형용사로 ‘정확하다’, ‘맞다’인 의미로 ‘非’와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 形容詞: 對, 正確的, 跟‘非’相對。  |   |
| ②  | 동사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주로 서면서에 많이 쓰인다.                       | 動詞: 認為正確, 主要用于書面語。  |   |
| ③  | 응답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 表示答應的詞  |   |
| ④  | 성씨의 한 종류이다.   | 姓   |   |
| ⑤  | 지시대명사 <sup>7)</sup> 로, 여기, 이것, 이것들 등과 같고 고대중국어의 용법을 이어받은 것이다. | 指示代詞: 這, 這個, 是沿襲古代漢語的用法。  |   |
| ⑥  | 繫詞  | (1) 두 사물을 이어주고 양자가 통일됨을 나타내거나 후자가 전자의 종류, 속성임을 나타낸다.                                      | (1) 聯系兩種事物, 表明兩者統一或是后者說明前者事物的種類、屬性。               |
|    |   | (2) ‘的’자와 대응관계에 있으며 분류작용을 할 수 있다.   | (2) 與‘的’字相應, 有分類的作用。                              |
|    |   | (3) 두 사물을 이어주고 진술의 대상이 ‘是’ 뒤에서 설명하는 상황임을 나타낸다.  | (3) 聯系兩種事物, 表示陳述的對象屬於‘是’后面所說的情況。                  |
|    |   | (4) ‘존재’를 나타낸다.   | (4) 表示存在。   |
|    |   | (5) ‘是’의 전후에 같은 명사나 동사를 사용하고 이런 구조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서술하고 있는 사건들이 서로 관계가 없으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 (5) ‘是’前后用相同的名詞或動詞, 連用兩個這樣的格式, 表示所說的几樁事物互不相干不能混淆。 |
|    |   | (6) 두 문장 중의 앞 문장에서 ‘是’의 전후에 같은 명사나 형용사, 동사를 사용하여 양보를 나타내는데 ‘비록...’의 의미를 갖고 있다.            | (6) 在上半句里‘是’前后用相同的名詞形容詞或動詞, 表示讓步, 含有‘雖然’的意思。      |
|    |   | (7) 문장의 가장 앞에 위치하여 문장의 어기를 강조한다.  | (7) 用在句首, 加重語氣。                                   |
|    |   | (8) 명사의 앞에 위치하여 ‘모든’의 의미  | (8) 用在名詞前面, 含有‘凡是’                                |

|  |  |                                     |
|--|--|-------------------------------------|
|  | 를 갖고 있다.   | 的意思。                                |
|  | (9) 명사의 앞에 위치하여 '적당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 (9) 用在名詞前面含有'適合'的意思。                |
|  | (10) 선택의문문, 시비의문문, 반문구에 사용된다.                                | (10) 用在選擇問句、是非問句或反問句里。              |
|  | (11) (반드시 되게 읽어주어야 하며 단호하고 결연함을 나타내고 '확실히', '정말'의 의미를 갖고 있다. | (11) (必須重讀)表示堅決肯定, 含有'的確', '實在'的意思。 |

吳澤炎(2009)의 《辭源》에 의하면 '是'는 다음과 같은 의미 항목<sup>8)</sup>들을 가지고 있다.

표 (2)

| 과정 | 한국어 의미                                  | 중국어 의미    |
|----|---|-----------|
| ①  | 정확하다. '非'와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 正確        |
| ②  |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 認為是正確的    |
| ③  | 긍정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 表示肯定判斷    |
| ④  | (사상 · 행동 · 방법 따위의 단점이나 잘못을) 바로잡다. 시정하다. | 訂正        |
| ⑤  | 지시대명사로, 여기, 이것, 이것들 등과 같다.              | 此, 這      |
| ⑥  | 무릇, 모든                                  | 凡, 所有     |
| ⑦  | 연사, 접속사                                 | 連詞        |
| ⑧  | 조사                                      | 助詞        |
| ⑨  | 고대중국어에서 '是'는 '氏'와 같은 글자다.               | 古是, '氏'同字 |

張玉金, 高虹(1999)의 《全功能漢語常用字字典》<sup>9)</sup>에 의하면 '是'가 상고중국어 시기에는 支韻, 禪紐, 上聲이었지만, 중고중국어 시기에는 止韻, 開口, 三等, 上聲, 紙韻, 禪紐, 承紙切이었으며, 근대중국어에서는 支思韻, 審紐, 去聲이었으며,

7)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指示代詞'를 '지시대명사'로 칭한다.

8) 吳澤炎, 《辭源》(上, 下), (北京: 商務印書館, 2009), 1422쪽.

9) 張玉金, 高虹, 《全功能漢語常用字字典》, (沈陽: 遼海出版社, 1999), 538쪽-539쪽.



현대중국어에서는 一七韻, 審紐, 去聲이다. 그리고 '是'는 다음과 같은 의미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표 (3)

| 과정 | 한국어 의미                              | 중국어 의미    |
|----|-------------------------------------|-----------|
| ①  | 日正, 해가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 日正        |
| ②  | 정확하다. '非'와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 正確        |
| ③  |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 認為正確      |
| ④  | (사상·행동·방법 따위의 단점이나 잘못을) 바로잡다. 시정하다. | 糾正        |
| ⑤  | 지시대명사로, 여기, 이것, 이것들 등과 같다.          | 這, 這個, 這些 |
| ⑥  | 긍정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 判斷        |
| ⑦  | 부사로 '확실하다'와 같다.                     | 確實        |
| ⑧  | 무릇, 어떠한                             | 凡是, 任何    |

위의 서술을 보면 '是'는 처음 나타났을 때는 '해가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상형문자로 출발하여 '정확하다(正確)'라는 형용사로 발전하였고, 그리고 동사 '정확하다고 생각한다(認為正確)', '교정하다. 바로잡다. 시정하다. (糾正)'로 발전하였다.

張玉金, 高虹(1999)은 그들의 연구를 토대로 《全功能漢語常用字字典》에서 '是' 의미항목의 발전과정<sup>10)</sup>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 발전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sup>11)</sup>

10) 張玉金, 高虹, 《全功能漢語常用字字典》, (沈陽: 遼海出版社, 1999), 539쪽.

11) 한 의미의 심자지는 사전에 나오는 의미항목의 순서와 의미항목간의 관계가 파생인지 가차인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겠고, 의미소 분석에 따른 의미구조가 각각의 기능에 따른 비교적 특징을 제시해준다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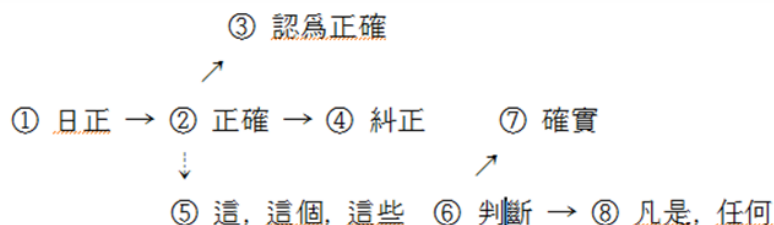


그림 (2) '是'의 의미 확장 순서

위 수형도 중 만약 의미간의 관계가 파생(引申)관계라면 화살표가 실선으로 되어있고, 만약 의미간의 관계가 가차(假借)관계라면 점선으로 된 화살표로 그 의미의 발전과정을 나타냈다<sup>12)</sup>.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③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認為正確)'와 '④ (사상·행동·방법 따위의 단점이나 잘못을) 교정하다. 바로잡다. 시정하다. (糾正)', 그리고 '⑤ 대명사로, 여기, 이것, 이것들 등과 같다. (這, 這个, 這些)' 이 세 의미항목 모두 두 번째 의미항목인 '② 정확하다(正確)'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⑤ 대명사로, 여기, 이것, 이것들 등과 같다. (這, 這个, 這些)'는 '② 정확하다(正確)'와 가차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여기, 이것, 이것들'등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확하다'라는 의미의 '是'를 가차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⑥ 긍정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判斷)'은 '⑤ 대명사로, 여기, 이것, 이것들 (這, 這个, 這些)'에서 발전해 왔고 '⑦ 부사로 '확실하다'와 같다. (確實)'과 '⑧ 무릇, 어떠한 (凡是, 任何)'은 '⑥ 긍정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判斷)'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의미관계의 발전을 보면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단계로의 발전만 가차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파생관계이다. 본고에서는 다섯 번째 단계에서 여섯 번째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표 (2)과 표 (3)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면, 표 (2)에는 표 (3)에서 언급되지 않은 連詞와 助詞에 대한 설명이 있고, 표 (3)에는 표 (2)에 없는 '是'의 副詞 용법

12) 張玉金, 高虹, 《全功能漢語常用字字典》: 「其字義引申樹形圖是: 如果義項之間是引申關係, 則用實箭頭表示。…… 如果義項之間是假借關係, 則用虛箭頭表示……。」, (沈陽: 遼海出版社, 1999), 2쪽 참조.

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표 (3)의 특징을 보자면 '是'의 의미 확장 순서대로 각 의미항목을 설명하였다.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선진시기의 《논어》에는 '是'의 連詞, 助詞, 副詞 용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1)과 표 (2), 표 (3)을 비교해 보면, 현대중국어에 이르러 '是'의 連詞, 副詞 용법은 사라지고 대신 繫詞용법에서 그 내용이 11가지로 늘어나 繫詞용법이 훨씬 풍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세 사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들 사전에 제시된 '是'의 용법이 《논어》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논어》에 출현한 60개 '是'의 의미구조를 품사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특히 《논어》에 繫詞 '是'의 존재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다뤄볼 생각이다.

#### IV. '是'의 의미구조

본고에서 고찰하고자하는 '是'는 《논어》에 모두 60번 출현하였다. 이중 지시대명사 34번, 한정작용 지시대명사 7번<sup>13)</sup>, 繫詞<sup>14)</sup> 4번, 조사 4번, 부사 4번, 그리고 連詞 한 번, 형용사 한 번, '故', '以', '用'과 함께 '是'자 구조 6번 구성 등 했다. 본고에서는 성분분석법과 격문법이론<sup>15)</sup>을 도입하여 격관계 분석법으로 '是'의 의미구

13) 何樂士(2000:21), 《古漢語虛詞通釋》에서는 이런 한정어로만 사용되는 통사적 특징을 가진 '是'를 대명사에 귀속시켰지만, 본고는 이들을 한정작용 지시대명사로 따로 분류하였다.

14) 본고에서는 關繫를 나타내는 동사를 繫詞라 칭한다.

15) Fillmore, C. J 저, 남용우 등 역, 《격문법이란 무엇인가(The case for case(1968): Some problems for case grammar(1971))》: 「Imore(1968, 1971)는 표준이론 중의 심층구조의 타당성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격문법(case grammar)을 제창하였다. 격문법에 의하면 표준이론에서 심층구조에 존재하는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등의 문법적 관계는 실제로는 모두가 표면구조에 속하는 개념이다. 심층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문법적 관계가 아니라, 행위자격(Agent), 경험자격(Experiencer), 대상격(Object), 도구격(Instrument), 결과격(Result), 기점격(Source), 착점격(Goal), 장소격(Locative), 시간격(Time) 등 격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심층구조에서 명사구마다 일정한 격 역할(case role)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서

조를 분석하고 '是'가 각 문장 중에서 어떤 원인으로 여러 가지 품사로 나뉘어져 사용되고 있는지도 서술해 보겠다.

본고가 사용하려는 성분분석법은 단어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의미소 분석(componential analysis)이다. 의미소 분석<sup>16)</sup>이란 단어의 의미를 보다 작은 의미단위인 의미소(semantic feature)로 분석하여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娶(~를 아내로 맞이하다.)'와 '嫁(~에게 시집가다.)'를 비교해 본다면, '娶(~를 아내로 맞이하다.)'는 '娶: +[[+남성\_\_[-남성]]'으로 표시할 수 있고, '嫁(~에게 시집가다.)'는 '嫁: +[[[-남성\_\_[+남성]]'으로 표시할 수 있다.<sup>17)</sup> 즉 동사 '娶(~를 아내로 맞이하다.)'와 '嫁(~에게 시집가다.)'는 위와 같은 동사의 의미 특성을 충족시켜야 맞는 문장이 나오지, 그렇지 못한다면 비문이 나올 것이다. 동사와 논항 사이의 선택 제한 현상은 명사구의 의미소 분석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본고에서는 동사와 논항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론적 관계인 격 관계도 분석할 것이다.

동사와 논항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론적 관계를 Fillmore는 격 관계(case relationship), 또는 격(case)라고 했다.<sup>18)</sup> 자연언어에 이와 같은 격이 도대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공인된 결론이 아직 없다. Fillmore는 1968년의 「The case for case(1968)에서 여섯 가지를 제시했지만, 「Some problems for case grammar(1971)」에서는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도 Fillmore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중국어는 형용사도 술어가 될 수 있기에 본고는 형용사 술어문의 술어와 논항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도 분석해 볼 것이다.

湯廷池(1990)<sup>19)</sup>는 그의 저서에서 중국어 문법 분석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격으로서

을: 을유문화사, 1987), 23-175쪽 참조.

16) 박종한, 《중국어 동사 유의어 연구방법론》, (서울: 중국도서문화중심, 2000), 26-27쪽.

17) 여기에서 '\_\_\_'는 환경기호(environmental bar)를 나타내고, '娶: +[[+남성\_\_[-남성]]'과 '嫁: +[[[-남성\_\_[+남성]]'는 '娶(~를 아내로 맞이하다.)'와 '嫁(~에게 시집가다.)'의 의미구조를 표시하고 있다.

18) Fillmore, C. J 저, 남용우 등 역, 《격문법이란 무엇인가(The case for case(1968): Some problems for case grammar(1971))》, (서울: 을유문화사, 1987), 23-175쪽.

행위자격(Agent), 경험자격(Experiencer), 대상격(Object), 도구격(Instrument), 결과격(Result), 기점격(Source), 착점격(Goal), 장소격(Locative), 시간격(Time) 등 아홉 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의미관계는 추상적인 층위인 심층구조에서 동사에 의해 논항에 부여되어 그 의미관계가 표면구조의 어순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격 역할 또는 격은 적당한 변형을 거친 뒤 표면구조에서 주어, 목적어, 전치사구 등으로 된다. 그러므로 심층 구조에서 거의 모든 격은 잠재적으로 주어이거나 목적어다. 어느 격이 표면구조의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가는 각각의 동사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본고는 '是'의 여러 역할의 의미구조를 격문법에 의거하여 분석해볼 것이다.

## 1. 지시대명사

《논어》에 출현한 '是'가 대명사로 쓰인 예로는 34번이다. 이들 대명사의 용법을 분석해본 결과 이중 일반 지시대명사로 쓰인 예는 19번이고 繫詞의 경향성을 보인 지시대명사의 예로는 15번 출현하였다. 그러나 繫詞의 경향성을 보인 지시대명사 '是'는 비록 繫詞의 경향성은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繫詞로 발전하지 못했고 지시대명사와 繫詞의 과도기에 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 1) 일반 지시대명사

일반 지시대명사 '是'는 '거리상 매우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시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보통 앞 문장에서 이미 출현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다. 이런 지시대명사 '是'는 현대중국어의 '這', '這樣', '此'로 번역할 수 있다.

- (1) 子曰：「古者民有三疾，今也或是之亡也。」(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옛날에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병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것도 없어진 것 같다.”) (17.16)

19) 湯廷池 저, 박중환 옮김, 《중국어 변형 생성문법》, (서울: 학고방, 1990), 85-102쪽 참조.

- (2) 子曰：「以不教民戰，是謂棄之。」(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은 그들을 내버리는 것이다.” (13.30))

예문 (1)를 보면 지시대명사 ‘是’는 앞 문장 중의 ‘三疾’를 가리키고 있고 현대중국어의 ‘這’로 번역할 수 있다. 예문 (2)를 보면 지시대명사 ‘是’는 앞 문장 중의 ‘以不教民戰’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고 현대중국어의 ‘這’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두 예문 중의 ‘是’ 모두 앞의 문장에 출현한 적이 있는 사물이나 사실을 지시하고 있는 대명사이기에 지시대명사로 봐야 한다. 일반 지시대명사 ‘是’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是’ : +[[-인간]O , Adv[-인간]O \_\_也(矣)]

## 2) 繫詞 경향성 지시대명사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지시대명사는 《논어》에 모두 15번 출현하였다. 이런 대명사들은 서술문(11번), 의문문(4번), 감탄문(1번) 등에서 앞문장의 내용을 復指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繫詞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앞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가리키고 있기에 지시대명사로 봐야 할 것이다.

- (3) 子曰：「主忠信，徙義，崇德也。愛之欲其生，惡之欲其死。既欲其生，又欲其死，是惑也。『誠不以富，亦祇以異。』」(공자께서 대답하였다. “충성과 신의를 주로 하고 정의를 향하여 옮겨가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다.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살기를 바라고 미워지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은 살기도 바라고 죽기도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미혹된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시 단지 색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같다.) (12.10)
- (4) 子曰：「不逆詐，不億不信。抑亦先覺者，是賢乎！」(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상대방이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미덥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미리 깨달으면 그 사람이 현명한 것이다.) (14.31)
- (5) 夫顓臾，昔者先王以爲東蒙主，且在邦域之中矣，是社稷之臣也。(저 전유는 옛날에 선왕께서 동몽산의 제주로 삼으셨고 또 그 지역이 노나라의

영역 안에 있으니 이는 사직지신이다.) (16.1)

- (6) 虎兇出於柙，龜玉毀於櫝中，是誰之過與？(호랑이와 외뿔소가 우리에서 뛰어나오고 귀갑과 옥이 껍데 안에서 깨졌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16.1)

예문 (3)을 보면, “既欲其生，又欲其死，是惑也。”에서 ‘是’는 앞의 문장 ‘既欲其生，又欲其死’를 가리키는 것이다. 얼핏 보면 현대중국어의 ‘A是B’라는 판단문으로 보기 쉽지만, 앞과 뒤가 두 문장이고 뒤 문장 중의 ‘是’는 앞 문장 전체를 대신하고 있는 대명사다. 즉 ‘是’는 復指대명사로 아직 繫詞로 완전히 발전하지는 못했고 다만 繫詞의 경향성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4)을 보면 “抑亦先覺者，是賢乎！” 문장 역시 얼핏 보면 “미리 깨달은 자가 현명하다.”라는 의미의 판단문으로 보기 쉽지만, 이때의 ‘是’는 앞의 문장 ‘抑亦先覺者’를 대신하고 있는 지시 대명사이다. “抑亦先覺者，是賢乎！”는 두 개의 문장이고 ‘是’는 대명사이다.

예문 (5), (6) 중의 ‘是’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繫詞로 완전히 발전하지는 못했고 다만 繫詞의 경향성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3), (4), (5), (6)가 모두 판단문인 것은 틀림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판단관계가 繫詞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기조가 ‘也’, ‘乎’, ‘與’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들 문장 중의 ‘是’ 모두 앞 문장에 출현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가리키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기에 현대중국어의 繫詞 ‘是’와는 다르다. 현대중국어의 ‘是’는 판단문을 형성해 주는 작용을 하지만 復指의 작용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지시대명사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是’ : +[[-인간]O/ [+인간]O \_\_也(矣, 與)]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지시대명사가 《논어》에 15번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고는 생각한다. 이런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지시대명사 ‘是’가 더 발전을 하면 繫詞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凡是，任何’라는 의미를 가진 한정 작용을 하는 지시대명사로 그 의미가 확장하게 된다. 《논어》에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지시대명사, 繫詞, 한정 작용을 하는 지시대명사 등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 자체가 '是'의 발전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이런 발전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볼 생각이다.

## 2. 한정 지시대명사

'한정 지시대명사' '是'란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위치하여 그 뒤에 출현하는 중심어인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작용을 하는 지시대명사 '是'를 일컫는 것이다. 이런 명사나 대명사 중심어를 수식하는 한정 지시대명사 '是'는 《논어》에 7번 출현하였는데, 다른 지시대명사와 달리 그 용법이 특수성을 띠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다른 지시대명사와 분리하여 다뤄볼 생각이다.

- (7) 子禽問於子貢曰：「夫子至於是邦也，必聞其政，求之與？抑與之與？」(자금이 자공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 어느 나라에 가든 꼭 그 나라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선생님께서 그 나라의 정치에 관하여 듣기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스스로 선생님께 그것을 들려드린 것입니까?” (1.10))
- (8) 子於是日哭，則不歌。(공자께서는 이런 날(상례를 치른 날)에 곡을 하시면 그날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7.10))
- (9) 子貢問爲仁。子曰：「工欲善其事，必先利其器。居是邦也，事其大夫之賢者，友其士之仁者。」(자공이 인을 행하는 일에 관하여 여쭙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기술자가 자기 일을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연장을 갈아야 한다. (인을 길천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니) 어느 한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의 대부들 가운데 현명한 사람을 섬기고 그 나라의 사 가운데 어진 사람을 벗어야라.” (15.10))

예문 (7)을 보면, '是'는 그 뒤에 위치한 중심어 '나라(邦)'를 수식하는 한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중국어의 '任何'<sup>20)</sup>로 번역할 수 있다. 예문 (8), (9) 중의 '是'도 마찬가지로 현대중국어의 '任何'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是'가 수식하는 중심어의 성분에 따라 '是'의 위치도 다양하다. 예문 (7)에서는 '邦'이라는 목적어를

20) 류중목, 《論語의 문법적 이해》: 「是: 막연한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어느 것이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서울: 문학과학사, 2010), 29쪽.



수식했고, 예문 (8)에서는 부사어인 '日'을 수식했고, 예문 (9)에서도 邦이라는 목적어를 수식했다. 한정작용 지시대명사 '是'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是' : ㉠: +[[-인간]O/ [+인간]O NP\_\_也]  
 ㉡: +[\_[-인간]O/ [+인간]O NP也]

본고는 한정 지시대명사 '是'가 《논어》에 7번 출현한 이런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張玉金, 高虹(1999: 539)의 연구에 의하면 '무릇, 어떠한(凡是, 任何)'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한정 지시대명사는 繫詞 '是'보다 늦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한정 지시대명사 '是'가 《논어》에 7번 출현한 이 사실이 이 시기 이미 繫詞 '是'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도 있게 된다. 아래 절에서 《논어》에 繫詞 '是'의 출현여부에 대해 예문을 통해 서술해볼 것이다.

### 3. 繫詞

繫詞는 判斷詞라고도 한다. 判斷詞는 판단문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이다. 그러나 고대중국어의 판단문은 判斷詞라는 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대중국어에 판단문이 존재했다는 것에는 인정을 하고 있다. '판단에 대한 사전적 해석은 "사물을 인식해서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sup>21)</sup>이다. 판단이라는 인식의 과정은 객관적인 형식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무엇이 판단의 결과를 나타내는 판단문인지는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郭錫良(2009[1999]) 등은 "판단문은 어떤 사물이 어떤 물건이거나 혹은 어떤 물건이거나 혹은 어떤 물건이 아님을 나타내고, 어떤 사물이 어떤 부류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음을 나타낸다."라는 정의를 내려 판단대상과 판단내용 사이의 관계가 '一致' 혹은 '歸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판단문이라고 했다. 그 외의 많은 학자들이 판단문의 정의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는데 그 기준은 대개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1) 민중서림편집국, 《옛센스 국어사전》, (과주: 민중서림, 2007(1974)), 2665쪽.

첫째, 주술부분이 일치관계를 이루는가?

둘째, 주어가 명사나 대명사 혹은 명사성구로 이루어지고 술어가 명사 혹은 명사구로 이루어졌는가?

셋째, 주어와 술어 사이에 繫詞가 있어 연결하고 있는가?

중국의 여러 학자들이 繫詞의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 그중 王力(1993[1962])은 ‘繫詞’는 판단문 중에서 주어와 명사성 술어를 이어주는 단어.<sup>22)</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1)에서 알 수 있듯이 ‘是’가 繫詞로 판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대명사로 여기, 이것, 이것들(這, 這个, 這些)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도 繫詞 연구에 대한 양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대명사에서 繫詞로의 발전’이라는 기준을 출발점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기준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판단문의 세 기준을 적용하여 선진시기 《논어》에 출현한 ‘是’의 繫詞 가능성 여부를 고찰해볼 것이다. 위의 여러 학자들의 관점으로 《논어》중에 출현한 ‘是’의 繫詞 여부를 추적해보려면 ‘是’의 의미관계와 위의 세 가지 판단기준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논어》에 이런 繫詞일 가능성을 가진 ‘是’의 예문은 다음과 같은 4개이다.

- (10) 子曰：「由！誨女知之乎？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줄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2.17))
- (11) 長沮、桀溺耦而耕，孔子過之，使子路問津焉。長沮曰：「夫執輿者爲誰？」子路曰：「爲孔丘。」曰：「是魯孔丘與？」曰：「是也。」曰：「是知津矣。」(長沮、桀溺이 나란히 서서 밭을 갈았다. 공자가 지나가다가 자로에게 이들에게 나루터를 물어보라고 시켰다. 長沮가 물었다. “저 수레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자로가 대답했다. “공자이다.” 長沮는 “노나라의 공구인가?”라고 묻자 자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長沮는 “저 사람이 나루터를 알 것이다.”라고 비꼬았다.(18.6))

22) 王力, 《漢語史稿》: 「繫詞是在判斷句中把名詞謂語聯繫於主語的詞。」, (北京: 中華書局, 2008, [1980]), 402쪽.

- (12) 問於桀溺，桀溺曰：「子爲誰？」曰：「爲仲由。」曰：「是魯孔丘之徒與？」對曰：「然。」(桀溺에게 물어보았더니 桀溺가 오히려 물어보기를: “당신은 누구인가?” 대답하기를: “仲由입니다.” 桀溺는 “노나라 공자의 제자인가?” 라고 묻자 仲由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18.6)
- (13) 曰：「滔滔者天下皆是也，而誰以易之？且而與其從辟人之士也，豈若從辟世之士哉？」(桀溺가 “은 천하에 이렇게 혼탁한 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그것을 바꾼단 말인가? 또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위정자를 피하여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는 공자 같은 사람을 따르느니 차라리 속된 세상 자체를 피하여 은거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라고 하였다. (18.6)

예문 (10)을 보면 ‘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라는 말이 곧 ‘知’이고 앞 문장 ‘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과 뒤의 ‘知’는 ‘是’에 의하여 긍정적인 판단관계를 이루고 있다<sup>23)</sup>. 즉 이 문장은 위에서 언급한 판단문의 세 가지 기준에도 맞고 王力(1993[1962])의 繫詞의 정의에도 맞는 문장이다. 즉 이때의 ‘是’는 繫詞이다.

예문 (11)을 보면, “長沮曰：「夫執輿者爲誰？」子路曰：「爲孔丘。」(長沮가 물었다. “저 수레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자로가 대답했다. “공자이다.”)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 ‘爲’가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爲’의 앞과 뒤의 ‘夫執輿者’, ‘誰’는 서로 일치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들 모두 명사나 대명사 혹은 명사성구로 충당이 되었다. 그 다음 대화를 보자. “曰：「是魯孔丘與？」曰：「是也。」(長沮는 “노나라의 공자인가?”라고 묻자 자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를 보면 이들 문장에서는 앞 문장의 관계 동사 ‘爲’ 위치에 대신 ‘是’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爲孔丘。」과 「是魯孔丘與？」는 같은 의미구조를 갖고 있다. 그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是’ : +[[+인간]O\_\_ [+인간]이**

예문 (11) 중 ‘爲’와 ‘是’가 같은 의미구조를 갖고 있고 두 단어 모두 판단을 나타내고 있기에 繫詞로 봐도 무방하다고 본고는 생각한다.

23) 吳澤炎, 《辭源(上, 下)》, (北京: 商務印書館, 2009), 1422쪽 참조.

예문 (12) 중의 '是'도 예문 (11)과 마찬가지로 '爲'와 '是'가 같은 의미구조를 갖고 있고 그 의미도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예문 (12) 중의 '是'도 繫詞라고 본고는 본다. 예문 (12) 중 “是魯孔丘之徒與?”는 원래 “(仲由)是魯孔丘之徒與?”이었는데, '仲由'가 생략이 되어 출현한 문장이다. '是'의 앞과 뒤의 '仲由', 魯孔丘之徒를 보면 서로 일치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들 모두 명사나 대명사 혹은 명사성구로 충당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와 술어 사이의 '是'를 繫詞로 볼 수 있다. 王力(1993[1962]), 郭錫良(2009[1999])은 예문 (12) 중 “是魯孔丘之徒與?”의 '是'를 대명사 '此'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郭錫良<sup>24)</sup>은 《논어》가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添削을 언급하면서 《史記》가 '是' 대신 '繫'를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사실은 원문중의 '是'가 繫詞라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繫'는 지시대명사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繫'가 지시대명사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繫'와 같은 위치 같은 기능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是'도 지시대명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앞에서 언급한 繫詞 판단의 세 기준을 적용해보면 이 '是'는 분명 繫詞임이 틀림이 없다.

예문 (13)을 보자. 「滔滔者天下皆是也，而誰以易之？」중 “滔滔者天下皆是也”를 분석해 보겠다. 이 문장에서 '天下'가 주어가 되겠고 '滔滔者'와 일치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天下(천하)'가 '滔滔者(흔탁한 물이 도도하게 흐르다)'하다로 볼 수 있다. 단 '滔滔者'가 원래는 繫詞 '是'의 뒤에 위치해야 하지만,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전치를 했을 따름이다. 錢宗武(2001)<sup>25)</sup>와 李明曉(2010)<sup>26)</sup>에 의하면 비대명사 목적어와 無標識 목적어의 전치가 金文을 포함한 상고중국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아래의 표<sup>27)</sup>를 통하여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4) 郭錫良, 漢語史論集: 「... 恰好相反, 筆者認爲《史記》把'是'字改爲'繫'字, 這一字之改, 更能說明《論語》原文的'繫'字是繫詞, 而不是指示代詞。因爲'繫'字從來不當指示代詞講。」, (北京: 商務印書館, 1997.) 114-115쪽 참조.

25) 錢宗武, 《今文《尚書》句法研究》,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11), 87-101쪽 참조.

26) 李明曉, 《戰國楚簡語法研究》,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0), 390-395쪽 참조.

27) 韓京淑, 《『論語』前置 목적어구 의미구조 고찰》, (중국문학연구, 서울: 한국중문학회, 2013(08), 52), 103쪽.

표 (4)

| 목적어<br>시대/문헌 별 |            | 전치                   | 후치             |
|----------------|------------|----------------------|----------------|
| 甲骨文            | 동사 목적어     | 代                    | 代/非代           |
| 今文<br>尚書       | 동사 목적어     | 疑代+述                 | 代/非代           |
|                |            | 否+代+述                | 代/非代           |
|                |            | 述+賓+是/之+述2           | 代/非代           |
|                |            | 賓1(間) +述+賓2(直)       | 代/非代           |
|                |            | 代+否+述                | 代/非代           |
|                |            | 代+述                  | 代/非代           |
|                | 전치사<br>목적어 | 非代+介+述               | 代/非代           |
|                |            | 疑代+介+述               | 代/非代           |
|                |            | 代/非代+以+述             | 代/非代           |
|                | 戰國<br>竹簡   | 동사 목적어               | 疑代+述           |
| 否+代+述          |            |                      | 代/非代           |
| 述+賓+是/之+述2     |            |                      | 代/非代           |
| 代+述            |            |                      | 代/非代           |
| 전치사<br>목적어     |            | 疑代+介+述               | 代/非代           |
|                |            | 代/非代+以+述             | 代/非代           |
| 楚辭<br>屈賦       | 동사 목적어     | 疑代+述                 | 代/非代           |
|                |            | 否+代+述                | 代/非代           |
|                |            | 述+賓+是/之+述            | 代/非代           |
|                |            | 莫+代+述                | 代/非代           |
|                | 전치사<br>목적어 | 疑代+介+述               | 代/非代           |
|                |            | 代/非代+以+述             | 代/非代           |
| 論語             | 동사 목적어     | 疑代+述(3)(97.2%)       | 述+疑代(1)(2.8%)  |
|                |            | 否+代+述(22)(65%)       | 否+述+代(12)(35%) |
|                |            | 述+賓+是/之+述2(16)(100%) | 代/非代           |
|                | 전치사<br>목적어 | 疑代+述(14)(100%)       | 代/非代           |
|                |            | 代/非代+以+述(15)(100%)   | 代/非代           |

따라서 본고는 “滔滔者天下皆是也”에서 주어는 ‘天下’이고 술어는 ‘滔滔者’이며

‘是’는 이들의 일치 관계를 나타내는 繫詞라고 판단한다. ‘是’ 앞의 부사(Adv) ‘皆’는 그 뒤에 위치한 繫詞 ‘是’를 수식해 주고 있다. 이 문장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是’ : +[[+인간]O [-인간]I Adv\_\_也]

高小焱(2006: 130)는 선진시기 고대중국어에서 부사가 명사성 술어를 수식하는 예문이 많이 출현했기에 “滔滔者天下皆是也”에서 부사 ‘皆’가 수식하고 있는 ‘是’가 이런 이유 때문에 繫詞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고의 생각은 다르다. 선진시기 고대중국어에서 부사가 명사성 술어를 수식하는 예문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사가 동사성 술어나 형용사성 성분을 수식하는 예문이 훨씬 많기에 이런 이유로 ‘皆’가 수식하고 있는 ‘是’를 繫詞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 근거가 빈약하고 오히려 이런 현상이 이 ‘是’가 繫詞라는 반증일 수 있다고 본고는 생각한다.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논어》에 부사 ‘皆’는 위의 예문 (13)을 포함해 모두 15번 출현하였는데, 명사성 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예문은 단지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7.18)”과 “四海之內, 皆兄弟也。(12.5)” 등 두 번(13.3%)이다. 나머지(86.7%)는 모두 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위의 두 예문을 보면 공통된 점이 있다. 바로 두 예문 모두 ‘皆+명사성 술어+也’라는 통사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고가 《논어》와 비슷한 시기에 씌어진 《左傳》에 출현한 부사 ‘皆’를 고찰해본 결과 281개의 ‘皆’ 예문중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것은 244개(86.9%)이고 나머지 37개(13.1%)만이 명사성 술어를 수식하고 있다.<sup>28)</sup> 이런 상

28) 《左傳》에 출현한 부사 ‘皆’가 명사성 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37개):

- 1) 三公子皆君也。(桓公/傳十一年);
- 2) 二十四年春, 刻其桷, 皆非禮也(莊公/傳二十四年);
- 3) 左行共華、右行賈華、叔堅、騅獸、纍虎、特宮、山祁, 皆里、平之黨也。(僖公/傳十年);
- 4) 且今之勅者, 皆吾敵也。(僖公/傳二十二年);
- 5) 納玉於王與晉侯, 皆十穀, 王許之。(僖公/傳三十年);
- 6) 秦伯任好卒, 以子車氏之三子奄息、仲行、鍼虎爲殉, 皆秦之良也。國人哀之, 爲之賦黃鳥。(文公/傳六年);
- 7) 親之以德, 皆股肱也, 誰敢貳? 若之何去之?」(文公/傳七年);
- 8) 夫人因戴氏之族, 以殺襄公之孫孔叔、公孫鍾離及大司馬公子卬, 皆昭公之黨也。(文公/傳八年);
- 9) 又與之遇, 七遇皆北, 唯裨、儵、魚人實逐之。(文公/傳十六年);
- 10) 凡稱弟, 皆母弟也。(宣公/

황들은 高小焱(2006: 130)의 선진시기 고대중국어에서 부사가 명사성 술어를 수식하는 예문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서술하면서 “滔滔者天下皆是也”에서 부사 ‘皆’가 수식하고 있는 ‘是’가 이런 이유 때문에 繫詞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 시기 명사성 술어를 수식하는 ‘皆’가 전체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근거로 ‘皆’가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기회가 87%나 되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즉 ‘皆’가 수식하는 ‘是’가 그만큼 繫詞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左傳》에 출현한 부사 ‘皆’의 예문 중 5), 9), 11), 15), 17), 26), 36) 등 7개의 예문 외에 나머지 30개는 모두 ‘주어+皆+명사성 술어+也’라는 통사적 구조를 갖고 있다. ‘명사성 술어+也’구조는 상고중국어시기 판단동사 없이 판단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문형이다. 예문 (13)중 “滔滔者天下皆是也”를 ‘주어+술어’의 순서로 재배열해보면 “天下皆是滔滔者也”가 되는데, 그 통사적 구조는 ‘주어+皆+是+

傳十七年 ); 11) 三代之令王皆數百年保天之祿。(成公/傳八年); 12) 六官者皆桓族也。(成公/傳十五年); 13) 邲之師, 荀伯不復從, 皆晉之恥也。(成公/傳十六年); 14) 女不可, 是皆君也。(成公/傳十六年); 15) 矯及諸其車, 以戈殺之。皆尸諸朝。(成公/傳十七年); 16) 凡六官之長, 皆民譽也。(成公/傳十八年); 17) 齊侯伐萊, 萊人使正與子賂夙沙以索馬牛, 皆百匹, 齊師乃還。(襄公/傳二年); 18) 滕、薛、小邾之不至, 皆齊故也。(襄公/傳二年 ); 19) 晉卿不如楚, 其大夫則賢, 皆卿材也。(襄公/傳二十六年); 20) 其餘皆數世之主也。(襄公/傳二十七年); 21) 廢興、存亡、昏明之術, 皆兵之由也, 而子求去之, 不亦誣乎!(襄公/傳二十七年); 22) 不然, 則重其幣帛, 以賀其福而弔其凶, 皆小國之禍也, 焉用作壇以昭其禍?(襄公/傳二十八年); 23) 子容專, 司徒侈, 皆亡家之主也。(襄公/傳二十九年); 24) 虞、虢、焦、滑、霍、楊、韓、魏, 皆姬姓也, 晉是以大。(襄公/傳二十九年); 25) 國皆其國也, 奚獨賂焉?(襄公/傳三十年); 26) 子干奔晉, 從車五乘, 叔向使與秦公子同食, 皆百人之餼。(昭公/傳元年); 27) 祁午、張趯、籍談、女齊、梁丙、張骼、輔躒、苗賁皇, 皆諸侯之選也。韓襄爲公族大夫, 韓須受命而使矣; 箕襄、邢帶、叔禽、叔椒、子羽, 皆大家也。韓賦七邑, 皆成縣也。羊舌四族, 皆彊家也。(4개 昭公/傳五年 ); 31) 三辟之興, 皆叔世也。(昭公/傳六年); 32) 諸侯從於楚者, 而皆小國也, 畏楚而不獲已, 是以來。(昭公/傳二十三年); 33) 王使甲坐於道及其門。門、階、戶、席, 皆王親也, 夾之以鉞。(昭公/傳二十七年); 34) 此皆季孫之願也, 使不敢以告。(定公/傳元年); 35) 三者皆叔也, 而有令德, 故昭之以分物。(定公/傳四年); 36) 人皆臣人, 而有背人之心, 況齊人雖爲子役, 其有不貳乎?(哀公/傳十五年); 37) 疾與亡君, 皆君之子也, 召之而擇材焉可也。(哀公/傳十六年), 李夢生, 《十三經譯注-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2004)).

명사성 술어+也'가 되겠다. '주어+접+명사성 술어+也'과 '주어+접+是+명사성 술어+也' 두 통사적 구조를 비교해보면 후자에 '是'가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13)의 '是'를 판단사의 세 가지 기준으로 검증해보겠다. 첫째, 주술부분인 '天下'와 '滔滔者'를 보면, 이들은 일치관계를 이루고 있다. 둘째, 주어 '天下'와 술어 '滔滔者' 모두 명사 혹은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다. '滔滔者'를 보면 '滔滔'는 '(흔탁한 물이) 도도하게 흘러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지만, 그 뒤에 출현한 '~者'라는 문형 때문에 명사화가 이루어져 '(흔탁한 물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명사구로 변화하였다. 셋째,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판단사 '是'가 이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판단사의 세 가지 기준으로 검증해보아도 繫詞의 정의에 비추어보아도 예문 (13) 중의 '是'는 繫詞가 분명하다고 본고는 생각한다.

따라서 위의 분석을 토대로 본고는 선진시기 繫詞 '是'가 이미 《논어》에 출현했다고 본다. 그림 (2)의 '是'의 의미 확장 순서를 다시 한 번 보자. 다섯 번째 단계에서 '是'가 지시대명사 '這, 這个, 這些'에서 여섯 번째 단계인 판단을 나타내는 繫詞로 확장되었다가 다시 여덟 번째 단계인 '凡是, 任何'라는 의미를 가진 한정 지시대명사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변천과정을 보더라도 《논어》에 '그 어떤 것이든, 모든(任何)'의 의미를 가진 한정작용 지시대명사 '是'가 7번 출현한 사실 자체가 이 시기 繫詞 '是'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본고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繫詞 '是'로 사용된 예문이 매우 적어 《논어》에 4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 말기에 이르러 《맹자》, 《순자》에는 그 수가 좀 많아지기는 했지만, 한나라를 거쳐 위진남북조, 당나라에 이르러서야 그 수가 훨씬 많아져 현대중국어에 이르러 유일한 繫詞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繫詞 '是'의 변천에 관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다른 여러 문헌들과 함께 비교 분석하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고찰할 예정이다.

#### 4. 조사

조사란 虛詞의 한 종류인데 문장 중에서 실사의 앞이나 뒤에 붙어 結構, 比況, 數字, 列舉, 限定 등 의미를 나타낸다.<sup>29)</sup> 《논어》에 조사로 사용된 '是'는 모두 4번



출현하였다.

- (14) 「唐棣之華，偏其反而。豈不爾思？室是遠而。」(산이스랏 꽃이 팔랑팔랑 나부끼네. 어찌 그대가 그림지 않으랴만 집이 너무 멀구나!) (9.31)
- (15) 子曰：「論篤是與，君子者乎？色莊者乎？」(언론이 조리가 있어 빈틈없고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군자다운 사람인가 겉모양만 장중한 사람인가? (11.21)
- (16) 孔子曰：「求！無乃爾是過與？」(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야! 바로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16.1)
- (17) 周有大賚，善人是富。(주나라에는 하느님이 내리신 커다란 하사품이 있었으니 훌륭한 인물이 참으로 풍부했다.) (20.1)

예문 (14)에서 ‘是’는 조사로 한국어의 ‘가’, ‘이’에 해당하기에 현대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번역이 안 될 수도 있다. 예문 (15)에서 ‘是’는 조사 ‘之’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조사이다. 이때의 조사 ‘是’는 강조의 작용을 하는데 전치목적어와 술어의 사이에 위치해 ‘之’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구조조사이다. 예문 (16) 중의 ‘是’는 현대중국어의 ‘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구조조사이다. 예문 (17) 중의 ‘是’도 예문 (14)과 같이 ‘是’는 조사로 한국어의 ‘가’, ‘이’에 해당하기에 현대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번역이 되지 않는다. 조사 ‘是’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 ‘是’ : ①: +[[-인간]0是\_\_]  
 ②: +[[-인간]이[-인간]0是\_\_]  
 ③: +[[+인간]0是\_\_]

## 5. 부사

부사란 虛와 實을 겸하고 있는 품사이다. 즉 허사와 실사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품사로 행위, 동작, 성질, 상태의 정도, 시간, 가능성, 정태 그리고 부정을 나타낸다. 부사는 일정한 實辭적 의미를 갖추고 있고, 문장 중에서 독립된 성분으

29) 張玉金, 《古代漢語語法學》,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0), 167쪽 참조.

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실사를 닮은 점이다. 그러나 문장 중의 중요 성분 즉 주어, 술어, 목적어 등으로는 쓰이지 않기에 虛辭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상고중국어에서 부사로 사용된 ‘是’의 예를 여러 고대중국어문법서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부사로 사용된 ‘是’는 《논어》에 모두 4번 출현하였다.

- (18) 子游問孝。子曰：「今之孝者，是謂能養。至於犬馬，皆能有養；不敬，何以別乎？」(자유가 효도에 관해 여쭙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의 효도란 단지 부모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와 말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먹여 살리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개나 말과 구별할 것인가?” (2.7).
- (19) 微生畝謂孔子曰：「丘何爲是栖栖者與？無乃爲佞乎？」(미생무가 공자에게 “구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가? 말재주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가?”(14.32).
- (20) 子曰：「過而不改，是謂過矣。」(공자께서 말씀하였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 말도 잘못이다.”(15.30).
- (21) 曾子曰：「吾聞諸夫子：孟莊子之孝也，其他可能也；其不改父之臣，與父之政，是難能也。」(중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선생님께 들었거니와 맹장자의 효도는 다른 것은 따라 할 수 있겠지만 부친의 가신과 부친의 정책을 바꾸지 않은 일은 정말 따라 하기 어렵다.)(19.18).

예문 (18) 중 “今之孝者，是謂能養。”을 보겠다. 이 문장에서 술어는 ‘謂(...이다)’이고 고대중국어에서는 ‘爲’와 같은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주어는 ‘今之孝’이고 ‘今之孝’뒤에 붙은 ‘者’는 음절을 조정하고 어기를 고르는 어기조사이다. ‘之’는 조사로 현대중국어의 ‘的’에 해당한다. ‘是’는 술어 ‘謂’의 앞에서 술어를 수식하는 현대중국어의 範圍부사 ‘只(단지, 밖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漢語大辭典》에서도 이 예문 중의 ‘是’를 부사로 명시하고 있다.

예문 (19) 중 “丘何爲是栖栖者與?”을 보겠다. 이 문장에서 술어는 ‘栖栖(바쁘게 쫓아다닌다)’이다. 그 뒤에 출현한 ‘者與’는 두 개의 어기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의 ‘者’는 음절을 조정하고 어기를 고르는 어기조사이고 뒤의 ‘與’는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이다. 문장의 주어는 ‘丘’이고 ‘何爲(왜, 무엇 때문에)’는

주어 ‘丘’와 술어 ‘栖栖’ 사이에 위치한 부사어이다. ‘是’는 술어 ‘栖栖者’의 앞에서 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程度를 나타내는 부사이고 그 의미는 ‘這么’, ‘如此’에 해당한다. 우리말로는 ‘이렇게’의 의미이다. 문장 전체의 의미는 공자 당신이 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가를 미생무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예문 (20) 중 “過而不改, 是謂過矣。”을 보겠다. 이 문장에서 술어는 ‘謂(...이다)’이고 고대중국어에서는 ‘爲’와 같은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주어는 ‘過而不改’인데 이 중 ‘而(오히려, 도리어)’은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連詞이다. 이 문장에서 ‘是’는 현대중국어의 ‘才(...야 말로, 비로소)’에 해당하는 부사로 술어 ‘謂’의 앞에서 술어의 範圍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21) 중 “其不改父之臣, 與父之政, 是難能也。”에서 술어는 형용사인 ‘難能(어렵다)’이 담당하고 있다. ‘是’는 술어 ‘難能’의 앞에서 술어의 程度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현대중국어의 ‘實在’, ‘非常’에 해당한다.

부사로 사용된 ‘是’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是’ : +[[±인간]O是\_\_]

## 6. 형용사

형용사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實辭이다. 형용사는 동사와 함께 술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상고중국어에는 형용사의 수가 그리 많지가 않고 《논어》에는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22) 子曰：「二三子！偃之言是也。前言戲之耳。」(공자가 말씀하셨다. “너희들! 언의 말이 옳다. 앞의 말은 그를 놀린 것일 뿐이다.”)(17.4).

위의 예문 (22)를 보면 “偃之言是也。”에서 ‘是’는 형용사로 ‘정확하다’라는 의미로 ‘非’와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논어》 시기 대부분의 ‘是’는 이미 대명사로 발전을 했지만, 이렇게 형용사로 쓰인 예문도 하나 남아 있었다. 그럼 (2)를 보면 ‘是’는 당초의 會意字 ‘日正(해가 하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에서 형용사 ‘正確

(정확하다)'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가 다시 대명사로 발전을 거친 흔적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춘추전국시기의 《논어》라는 한 문헌을 보더라도 '是'의 변천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논어》에 이르러 '是'의 원류가 되는 의미들은 점차 사라지고 기타 파생된 의미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논어》에 지시대명사 36번, 繫詞 3번, 한정작용 지시대명사 7번 출현한 상황을 보더라도 '是'가 이때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용사 용법으로 사용된 '是'의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是’ : +[[-인간]O\_ ]

## 7. ‘是’자 구조

《논어》에 ‘是’자 구조는 6번 출현하였는데, ‘是故’ 두 번, ‘是以’ 세 번, ‘是用’이 한 번 출현하였다. 이들 구조의 앞에는 모두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이 나타나고 ‘是’자구조가 그 원인의 결과를 뒤에서 이끌어낸다. 현대중국어의 關聯詞 ‘因此’, ‘所以’로 번역을 할 수 있다. 關聯詞는 현대중국어에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나타낸다. 《논어》에 출현한 6번의 ‘是’자 구조는 앞 문장과 뒤 문장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말로는 ‘그러므로, 때문에’로 번역을 할 수 있다.

- (23) 子曰：「是故惡夫佞者。」(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래서 나는 저 말 잘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야.”(11.25).
- (24) 爲國以禮，其言不讓，是故哂之。(예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그의 말이 겸손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웃었다.”(11.26).
- (25) 子曰：「敏而好學，不恥下問，是以謂之文也。」(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영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를 文이라고 부른다.”(5.15).
- (26) 子夏曰：「雖小道，必有可觀者焉；致遠恐泥，是以君子不爲也。」(자하가 말했다. “비록 작은 기예일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을 테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마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19.4).

- (27) 子貢曰：「紂之不善，不如是之甚也。是以君子惡居下流，天下之惡皆歸焉。」(자공이 말했다. “주왕이 선하지 않은 것이 이토록 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하류에 처하기를 싫어하니 천하의 악이 모두 그에게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19.20).
- (28) 子曰：「伯夷、叔齊不念舊惡，怨是用希。」(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와 숙제는 옛날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악하게 굴었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그래서 드물었다.”(5.23).

예문 (23) - (28)에서 ‘是故’, ‘是以’, ‘是用’ 등은 고정된 구조로 굳어지면서 《논어》에서 현대중국어의 關聯詞 ‘因此’, ‘所以’ 등과 같은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 비율은 전체 ‘是’의 10%로 그 비율이 그리 적은편이 아니었다.

‘是’자구조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是’ : +[[-인간]O ‘是故(是以, 是用)\_\_\_]

### V. 결론

‘是’는 다음과 같은 자형 변화를 거쳐 현대중국어의 ‘是’로 발전되어 왔다.

|  |  |  |   |
|--|--|--|---|
| <br>毛公旅方鼎 | <br>是要設   | <br>陳公子叔遠父廡 | <br>郟王權鼎 |
| <br>王子午鼎  | <br>袁成叔鼎  | <br>樂書缶     | <br>伯亞臣鐘 |
| <br>臧孫鐘   | <br>帛甲4.8 | <br>說文籀文    | <br>說文   |

그림 (1) ‘是’의 자형 발전 과정

본고의 분석을 토대로 《논어》 중 출현한 ‘是’의 분포와 의미구조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5)

|   | 품사              | 출현<br>횟수 | 출현<br>비율 | 의미구조                            |
|---|-----------------|----------|----------|---------------------------------|
| ① | 지시<br>대명사       | 34       | 56.7%    | ㉠: +[[-인간]O , Adv[-인간]O __也(矣)] |
|   |                 |          |          | ㉡: +[[-인간]O/ [+인간]O __也(矣, 與)]  |
| ② | 한정<br>지시<br>대명사 | 7        | 11.7%    | ㉢: +[[-인간]O/ [+인간]O NP__也]      |
|   |                 |          |          | ㉣: +[__[[-인간]O/ [+인간]O NP也]     |
| ③ | 繫詞              | 4        | 6.7%     | ㉤: +[[+인간]O__ [+인간]O]           |
|   |                 |          |          | ㉥: +[[+인간]O [-인간] Adv__也]       |
| ④ | 조사              | 4        | 6.7%     | ㉦: +[[-인간]O是__]                 |
|   |                 |          |          | ㉧: +[[-인간]O[-인간]O是__而(與)]       |
|   |                 |          |          | ㉨: +[[+인간]O是__而(與)]             |
| ⑤ | 부사              | 4        | 6.7%     | ㉩: +[[±인간]O是__]                 |
| ⑥ | 형용사             | 1        | 1.7%     | ㉪: +[[-인간]O__]                  |
| ⑦ | ‘是’자<br>구조      | 6        | 10%      | ㉫: +[[-인간]O’是故(是以, 是用)__]       |

첫째, 《논어》시기 ‘是’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是’의 원류가 ‘日’자와 ‘正’자로 구성된 會意자이고 ‘日’를 ‘標準’으로 삼은 것이 ‘是’인데, 천하의 만물이 모두 ‘日’처럼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갑골문에는 아직 ‘是’가 나타나지 않았고 金文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是’는 籀文, 大篆, 小篆을 거쳐 현대중국어의 ‘是’로 변화되어 왔다.

둘째, ‘是’의 의미 확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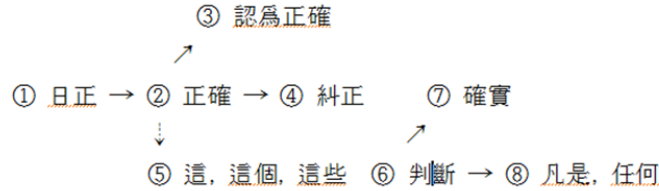


그림 (2) '是'의 의미 확장 순서

셋째, 《논어》 중 '是'의 용법을 살펴본 결과 지시대명사의 용법이 가장 많아 특수 지시대명사인 한정 작용의 지시대명사를 포함하여 지시대명사는 전체의 68.4%를 차지한다.

넷째, 한정 작용의 지시대명사는 문장 중에서 그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작용만을 하기에 다른 지시대명사와는 분명한 용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지시대명사 중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좀 특수한 지시대명사도 16번 출현하였는데, 비록 아직은 繫詞로 완전히 발전되지는 못 했지만 繫詞로 발전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특수 지시대명사는 전체의 11.6%를 차지한다.

여섯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본고는 선진시기 繫詞 '是'가 이미 《논어》에 출현하였다고 본다. 비록 그 수가 매우 적어 4번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고찰을 통하여 이 세 예문 중의 '是'가 확실히 繫詞라고 본고는 판단한다. 그리고 《논어》에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지시대명사, 繫詞, 한정 작용을 하는 지시대명사 등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 자체가 '是'의 발전과정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지시대명사 → 繫詞 → 한정 작용을 하는 지시대명사' 이런 순서가 '是'의 의미 확장 순서인데, '繫詞 경향성을 갖고 있는 지시대명사'와 '한정 작용을 하는 지시대명사'가 《논어》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논어》 시기 '是'의 繫詞 용법은 존재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일곱째, 《논어》에 對(맞다), 正確(정확하다)라는 의미로 '非'와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용법의 '是'도 하나 출현했고, 현대중국어의 關聯詞 '因此', '所以'로 번역을 할 수 있는 '是'자 구조도 6번 출현하였다. 형용사 용법의 '是'는 현대중

국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實事求是’, ‘一無是處’, ‘自以爲是’ 등 단어 중의 ‘是’의 용법과 같다. 즉 상고중국어의 형용사 용법이 그대로 현대중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高小焱, 《《論語》中的‘是’》, 濟南: 山東行政學院山東省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 (77), 2006.
- 郭錫良, 《漢語史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1997.
- 郭錫良, 《古代漢語語法講稿》, 北京: 語文出版社, 2007.
- 郭錫良, 《古代漢語》(上, 下), 北京: 商務印書館, 2009.
- 류종목, 《論語의 문법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 劉蘭玲, 《探析《論語》中‘是’的用法及其發展流變》, 白城師範學院學報(21卷4期), 2007.
-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馬 忠, 《古代漢語語法》,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3.
- 민중서림편집국, 《옛센스 국어사전》, 과주: 민중서림, 2007(1974).
- 邊滢雨, 《《論語》에 나타난 몇 가지 副詞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論譯叢刊: 中國語文論譯學會, (12), 2004.
- 신미자, 《《論語》에 나오는 ‘之’의 用法考》, 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17), 1989.
- 안재철, 《《論語》에 나타난 動賓구조 연구》, 國際語文국: 제어문학연구회, (2), 1981.
- 李夢生, 《十三經譯注-左傳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2004).
- 李明曉, 《戰國楚簡語法研究》,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0.
- 李宗澈, 《《論語》, 《孟子》에 나타난 선진시기 疑問詞 小考》, 중국어문학논집: 중국언어학연구회, (24), 2003.
- 吳澤炎, 《辭源》(上, 下), 北京: 商務印書館, 2009.
- 王 力, 《中國語言學史》,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7.
- 王 力, 《古代漢語》, 北京: 中華書局, 1993(1962).
- 王 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2008(1980).
- 楊伯俊,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1992.
- 楊伯俊, 《論語譯註》, 北京: 中華書局, 2010(1958).
- 張皓得, 《『論語』와 함께 배우는 고대중국어 문법》, 용인: 교학출판사, 2012.
- 張皓得, 《증문법 연구방법론의 이론과 실제》, 용인: 교학출판사, 2011.



- 張玉金, 《古代漢語語法學》,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0.
- 張玉金, 高虹, 《全功能漢語常用字字典》, 沈陽: 遼海出版社, 1999.
- 錢宗武, 《今文《尚書》句法研究》, 開封: 河南大學出版社, 2011.
- 程湘清, 《先秦漢語研究》,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2.
- 湯廷池 著, 박종한 옮김, 《중국어 변형 생성문법》, 서울: 학고방, 1990.
- 何樂士, 《古漢語語法研究論文集》, 北京: 商務印書館, 2000.
- 何樂士, 《古漢語虛辭通釋》, 北京: 商務印書館, 2000.
- 韓京淑, 《《論語》前置목적어구 의미구조 고찰》,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52), 2013.
- 許慎 著, 李翰文譯注, 《說文解字》, 北京: 九州出版社, 2006.
- 許嘉璐, 《十三經》,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1992.
- Fillmore, C. J 著, 남용우 등 역, 《격문법이란 무엇인가(The case for case(1968): Some problems for case grammar(1971))》, 서울: 을유문화사, 1987.

### 【中文提要】

本文在進行分析時採用了義素分析法、語義結構分析法和格語法, 通過對『論語』中“是”的字型演變、各種不同詞性、語義結構和詞義變遷過程的分析, 力圖掌握其語言形式的特征, 並分析出它們的語義特征。為此本文對《論語》進行了成分分析和義素分析, 找出了《論語》中“是”的語義特征, 並通過對這些語義特征的進一步分析, 對“是”的變遷過程進行了描述。本文特別對《論語》中是否存在繫詞“是”進行了較詳細的描述。

### 【主題語】

是, 判斷句, 繫詞, 句法演變, 語義結構, 格語法, 格關係, 語義特征。

투고일: 2013. 10. 14 / 심사일: 2013.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3. 11. 10